

이기는 삶

어른다운 품격

남의 말꼬리를 잡기 좋아하고 시기심이 많으며 사소한 일에도 성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남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자기를 흥분시키고 무례한 언사를 퍼부어댄다. 이들은 나이만 먹었지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반면에 나이에 걸맞게 자신의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사람은 자신이 대화의 중심이라고 여기는 허영심을 갖거나 스스로 잘났다고 과시하지 않는다. 또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이 잘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일도 없다.

모두가 이러한 존경받는 어른의 품격을 갖추고 싶지만 기분이 없는 철없는 어른들이 너무 많다.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버려야 할 습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허풍을 떨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유명한 아무개 자손이니 친척이니 친구라는 말을 떠들고 다니며 심지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

까지도 들먹이며 아무개가 우리 조부이네, 숙부이네, 친구네,라는 말을 끊임없이 뱉어낸다. 그 사람들이 친척이고 친구여서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은 스스로가 자신의 타고난 장점과 인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다음으로 이 세상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 가운데 '거짓말'처럼 범죄에 가깝고 아비하며 어리석은 것도 없다. 거짓말은 대개 허영심이나 두려움, 적의,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자기방어에서 비롯된다. 한번 거짓말을 하는 버릇이 들면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는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교양 있는 진정한 어른이 취해야 할 행동이다.

무엇보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감정적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다. 그는 타인의 장점이나 성공을 축하해 주지 못하며, 그 장점과 훌륭한 인격을 비난함으로써 악의 어린 회의를 느낀다. 이는 자신이 지닌 그 어떤 악습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합친 것보다도 더욱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비참하게 만든다.

그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 게으름이다. 게으름은 무능력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정체를 죽인다. 게으름은 마음을 부식시키는 녹이며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끔찍한 것이다. 게으름에서 벗어나려면 일을 마무리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 목표를 세워 꾸준히 끈기 있게 밀어붙이고 장애물에 가로막히면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더 나아가갈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마라.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판단을 내려버리곤 한다. 당연히 무시당한 사람들은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알면 알수록 겸허하게 행동해야 한다. 잘난 체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함부로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의 내용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버려야 할 요소들이 아니다. 누구든지 부지불식간(不知不覺)에 튀어나오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어른다운 품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한 피로 이루어진 사람의 뿌리는?

지금까지 사람 자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왜 모르느냐 하면 사람의 뿌리를 모르는 까닭이다. 나무도 뿌리가 있듯이 사람도 역시 뿌리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떨어진 분들이 아니요, 어머니 아버지의 피로 만들어진 분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뿌리는 여러분의 조상의 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5대 조부, 10대 조부, 100대 조부, 1000대 조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결국 아담과 헤와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피가 우리 인간에게 흐르고 있는고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영이요,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피의 작용이다. 사람 몸속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고로 양심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효능: 고관절을 부드럽게, 하체를 튼튼하고 날씬하게 해주며, 척추와

골반의 균형을 맞춰 엉덩이 선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주의: 무릎이 너무 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능력 따라 구부린다. 반대쪽 다리는 스트레칭 되도록 무릎을 펴서 발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전사자세, 전사확장자세!!!

동작①: 선 자세에서 어깨너비만큼 다리를 앞뒤로 확장하고 선다.

동작②: 양손을 앞무릎에 댄다. 다리를 앞으로 가볍게 밀어 골반을 바닥으로 내려 다리 뒷쪽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며 10초 유지 후 숨을 내쉬며 일어선다. 좌우 번갈아 3회.

동작③: 선 자세에서 어깨너비만큼 다리를 옆으로 확장하고 오른쪽 발끝을 90도로 퍼준다.

동작④: 양손을 합장하여 앞으로 쭉 퍼준다. 오른쪽 다리를 가볍게 내리면서 골반을 바닥으로 내려 왼쪽 다리를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며 10초 유지 후 숨을 내쉬며 일어선다. 좌우 번갈아 3회.*



다섯 모 한 걸 단동불(옫판의 중앙)로 나는 것이 말판을 잘 쓰는 요령일세

격암유록 新해설 제49회

弓乙論(四) 궁을론

人間超道鄭彌蘇神 인간초도정미소신 馬頭生角十五眞主 마두생각십오진주 午未樂堂 오미락당

이 분은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정(鄭) 즉 정도령(正道令)이요, 생미복불이요, 야소교(耶蘇教=기독교)에서 기다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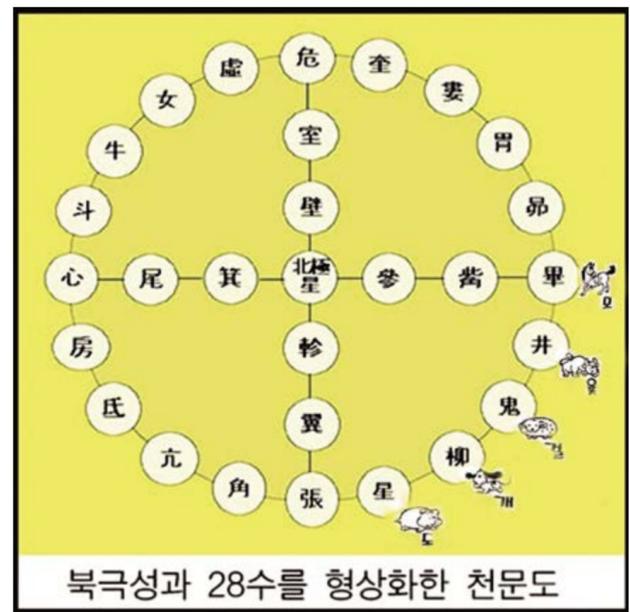
마두생각(馬頭生角)의 마(馬)는 지지(地支)의 오(午)요 오(午)의 머리에 뿔(角)이 났으니 우(牛)자가 되나니, 우성인(牛性人) 즉 영적 암마 소리를 듣는 사람이 십오진주(十五眞主)라네.

오미락당(午未樂堂)의 오미(午未)는 경오(庚午)와 신미(辛未)를 뜻하는데, 경오년 1990년에는 정도령의 예언공약대로 세계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이어서 신미년 1991년에는 정도령 환갑을 맞이하여 승리제단의 전당(殿堂)이 되는 신축제단 헌당 예배를 보게 되니 즐거운 일로다.

※ 참조: 격암유록 「궁을론」에 “육십일 세성공시(六十一歲成功時) 대우천간건립장(大廈天間建立堂)의 구결을 해석하면, 정도령 61세 때에 천간 집을 짓는데 ‘건립장(建立堂)’이란 정도령이 건립하는 주인 궁이라는 뜻이다.

靑龍之後女上加一 청룡지후여상기일 地邊去土 지변거토 狗驚羊喜五十八年 구경양희五十八年 궁경양희오십팔년

청룡(靑龍)의 청은 천간(天干)으로 갑



북극성과 28수를 형상화한 천문도

제91호 다시보는 우리문화: 옫판에 담긴 천문사상 그림 출처: http://webzine.daesoon.org/board/view_wvin.asp?bno=438

(甲)이요, 용은 지지(地支)로 진(辰)이로다. 청룡 곧 갑진년(甲辰年 1904년) 이후에 여상기일(女上加一)의 여(女)는 파자(破字)로 좌침우침(左七右七)이라 하여 14수를 뜻하고 여(女=14)를 가일(加一)하니 28수가 되니, 그런즉 갑진년(甲辰年)인 1904년에서 28년 후인 양(羊)의 해 즉 신미년(辛未年)인 1931년 생으로 십오진주(十五眞主)께서 출생한다는 뜻이네.

지변거토(地邊去土) 즉 예덴동산(土)에서 내쫓긴(去) 아담이 마귀를 이기는 둘째 아담으로 출현하는 장소가 지상의 변두리(地邊) 즉 땅 끝 땅 모퉁이 나 라가 되는 한반도라네.

궁경양희오십팔년(狗驚羊喜五十八年)의 구(狗)는 지지(地支)로 술(戌)이며 따라서 궁경(狗驚)은 1910년에 한

일합방이 되던 경술국치(庚戌國恥)로 매우 놀라운 일을 겪었지만, 신미생(1931년) 즉 양(羊)따로 나오신 십오진주 정도령께서 58세가 되는 무진년(戊辰年)에 88올림픽이 한국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는 1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전 세계에서 4등을 하는 기쁨을 만끽하였노라.

擲消目檀東致基 적사소목단동치기 五卯一乞柳東伏出 오묘이걸단동불출 未判之圖午未樂堂堂 말판지도오미러당당

옫놀이(擲消적사) 하는 이치를 조목 조목(目) 풀이보니(解消), 단동치기 또

는 단동네기를 하려면 묘(卯) 즉 모 다섯에 걸 하나로 치면 단동불(옫판의 중앙; 天元천원 또는 북극성 자리)로 나는 것이 말판을 쓰는 요령일세. 오미(午未)에 집집마다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 옫놀이의 단동치기에 숨은 내력에 대해서

① 檀東致基(단동치기) 五卯一乞(오묘일걸); ‘檀東致基(단동치기)’란 단군(檀君)께서 동방에 이르러 터를 잡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오묘일걸(五卯一乞)’의 오(五)는 무극(無極)의 주인공 십오진주의 상징이면서 5획수의 정(正)이 들어 있는 정도령(正道令)의 상징이다. 묘(卯)는 동방묘(東方卯)요, 일(一)은 임금 왕(王)자의 약자(略字)요, 걸(乞)은 옫놀이에서 세 발을 가니 즉 3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단군께서 동방의 나라 한국 땅에 이르러 터를 잡고 나라를 세우신 깊은 뜻은, 십오진주(十五眞主)되신 삼신합일(三神合一)의 삼위일체 완성자인 왕중왕(王中王) 정도령을 배출기 위함이다.

② 단동치기(檀童治基) 십계훈(十誡訓); 한반도에 고조선이 세워진 이래로 단군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들을 위한 열 가지의 훈육법이다.

- 제1훈: 弗亞弗亞(불아불아) 제2훈: 詩想詩想(시상시상) 제3훈: 道理道理(도리도리) 제4훈: 持鬮持鬮(지암지암) 제5훈: 坤地坤地(곤지곤지) 제6훈: 西摩西摩(심마심마) 제7훈: 業非業非(업비업비) 제8훈: 亞亞亞亞(아함아함) 제9훈: 作作作作(작작작작) 제10훈: 支羅囉囉(지라라비 활활의)*

吉星照

Immortal Valley

정신집중의 공로

우리들의 마음은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통제하기가 무척 어렵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온갖 죄를 다 짓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죄 아닌 게 없다는 것이 승리제단의 진리이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되는 '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죄를 해결하는 근본이 된다.

'나'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의식을 하나에 집중하는 법이 일반적으로 도 닦는 곳에서 사용된다. 불교에서는 화두를 잡거나 염불을 외우며, 중산 계열의 종교에서는 주문을 외운다. 승리제단에서는 조희성님의 얼굴을 고도로 사모하라고 가르친다. 물론 박멸소탕 기도를 하면 '나'를 없앨 수 있으나 그때에도 조희성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해야 한다.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조희성님의 얼굴은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잘 떠오르지 않는다. 어떤 때는 일부분만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뒷모습이 떠오르기도 한다. 우리들의 주체 영이 인간의 영인지라 이기신 하나님인 조희성님의 얼굴은 좀체 떠올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필지라도 계속 노력해서 떠올려야 한다. 그리하여 조희성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을 점점 늘리게 되면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없어진다. 이것은 마치 화두를 잡는 것 같아서 선정(禪定)에 드는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조희성님의 얼굴을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 굳이 떠오르는 생각에 이름을 매길 필요도 없다. 다만 박멸소탕 기도를 할 때는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미워하는 살인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면 '음란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이라고 속으로 외워둬 되고, 겉으로 말해도 된다.

승리제단의 수행법은 마음챙김 명상과 비슷한 점이 많다. 과학자들은 명상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텔로미어를 보호해준다고 한다. 전 세계적 유명 싱커(Thinker)인 유발 하라리 교수도 매일 빠짐없이 1시간 반 가량 명상을 한다고 한다. 자신의 베스트셀러 3권도 명상을 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명상 찬미론자이다. 마음챙김 명상법과 승리제단 수행법이 다른 점은 감로가 연결되어 입안에서 단침이 생긴다는 점이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강릉제단 : 033-53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